

조선후기 책판의 간행공간에 관한 연구

-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ublishers and Publishing Places of Wooden Printing Blocks in the Late Joseon

- Centered on the Wooden Printing Blocks of
KSAC(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

손 계 영 (Son, Ke-Yo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책판 간행공간의 조건 |
| 2. 책판의 공식 간행처 | 4.1 물력과 인력 확보의 용이성 |
| 2.1 지방관아 | 4.2 참여인력의 작업 및 식생활 |
| 2.2 서원 | 공간의 확보 |
| 2.3 서당 | 4.3 간행주체와의 소통 가능한 |
| 2.4 亭齋·私家 | 시스템 구축 |
| 3. 책판의 실질적 간행공간 | 5. 맺음말 |
| | <참고문헌> |

<초 록>

인쇄된 서책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의 모체인 책판에는 간행할 당시 살아있는 정보들이 숨어있다. 간행이 이루어졌던 공간, 그 공간 속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포착해낼 수 있는데, 본고는 조선후기 책판 간행 공간과 간행 여건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에 새기거나 墨書한 刊記를 통해 책판의 공식 간행처를 지방관아·서원·서당·문중[私家]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책판의 공식 간행처가 실제 간행이 이루어졌던 간행공간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공식 간행처가 실제 간행공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확인된 18~19세기의 간행사례를 통해 책판이 간행되었던 공간의 모습과 간행공간을 이루었던 여러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책판의 간행은 물력·인력 조달이 지리적 위치 또는 상황에 따라 매우 용이한 조건을 갖춘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간행의 참여인력들이 작업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으로 확보 가능한 곳이었으며, 이들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의 공간이어야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sonkey@knu.ac.kr)

접수일: 2011년 9월 9일 최초심사일: 2011년 9월 13일 심사완료일: 2011년 9월 15일

책판간행이 가능하였다. 이외에도 간행주체와 소통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간행작업이 원활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물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운영구조와 구성원들의 실질적 업무를 통해 소통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要語: 목판, 책판, 간행처, 간행 공간, 간기

<ABSTRACT>

Though not found in the printed book, the vivid informations at the time of publish can be found in the wooden printing blocks thereof. From the places of publish, the people therein and lives thereof also can be detected. This paper tried to examine the publishing places of wooden printing block in the Late Joseon and the people therein.

Based on the publish records carved or written on the wooden printing blocks possessed by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this paper classified the official publishing places of wooden printing block into local government office, Confucianist auditorium, village school and private family house, and checked out whether the official publishing places and real publishing places were same or not. Through the publish cases of 18th and 19th Century confirmed by above check, the figure and conditions of publishing places could be examined.

The publishing of wooden printing blocks were done in the places where the geographical position and other conditions were very good to procure the personal and material resources. The working and residential space for manpower were also essential for the publishing. In addition, the distances to the main agent of publishing was close enough for smooth communication. Otherwise, they had some system that could close the distance by the efficient operation and practical communication between members.

Key words: wooden printing blocks, publisher, publishing places, publish records

1. 머리말

조선시대 서책의 목판 간행은 인물과 저술, 공론과 경제력, 정치적 이해 등 복합적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작업이었기에 간행주체의 학문적 권위와 사회적 힘, 경제력의 상징으로 대변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인쇄된 책보다는 간행된 목판이어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조의 문집 또는 저술을 목판본으로 간행한다는 것은 자신과 후손에게 돌아가게 될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인출된 서책에 있어 가장 부각되는 사람은 저자와 간행자일 것이다. 인출된 서책에는 이들 외의 인물에 대한 정보가 없는 반면, 책판을 들여다보면 이면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글자를 새겼던 각수, 새겨지기 전 글자를 종이에 썼던 서수, 마구리를 달았던 목수, 먹을 칠하여 종이에 인쇄하였던 인출공, 책을 맺던 책장, 그들의 작업을 감독했던 유사 등이다. 이면에 가려진 이들의 존재에 의해 서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보가 책판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사회의 권위와 지식의 산물인 서책 간행은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였으며, 그 과정에는 공간과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 본고는 수백년 전에 책판 간행이 이루어졌던 공간과 그 공간 속에 있었던 이들의 삶의 일부를 오늘에 와서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선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 가운데 간행기록[刊記]이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책판의 공식 간행처를 살펴보고, 책판의 공식 간행처가 실제 간행이 이루어졌던 간행공간과 일치하는지를 간행 당시 기록인 일기·참여자명단·지출내역장부 등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책판이 간행되었던 공간은 어떤 모습이며, 간행공간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18~19세기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2. 책판의 공식 간행처

한국국학진흥원에는 6백여 종의 서책을 간행할 때 사용되었던 각 페이지별 인쇄 책판이 6만여 점 소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는 책판의 간행 기록인 刊記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들 책판의 공식적인 간행처를 알 수 있다. 대부분 본문 마지막 페이지의 1~3행에 간행시기와 간행처를 책판에 새겨 표기하였고(<그림 1> 참조), 1900년대에 간행된 목판본의 경우에는 별도의 판면에 간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새겼다(<그림 2> 참조). 간기를 책판에 새겨 넣은 경우에는 인쇄시 간기가 서책에 그대로 찍혀 배포되었다. 반면 간기를 책판에 새기지 않고 책판의 비어 있는 면 또는 마구리에 표기한 경우도 있다(<그림 3> 참조). 이러한 경우는 인쇄된 서책에서는 간기를 알 수 없고 책판의 실견을 통해 그 간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새기거나 묵서한 간기를 중심으로 간행처에 따라 대표적인 서책과 책판을 소개하고자 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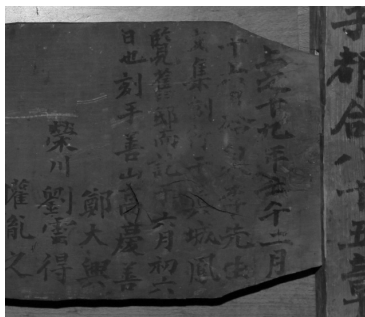


<그림 1> 본문 끝에 간기를 새긴 경우(「邵城聯芳集」)



<그림 2> 별도의 판면에 간기(판권)를 새긴 경우(「蒙語類訓」)

1) 본고에 사용된 책판 이미지는 모두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이며, 이미지 형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판을 左右 회전시킨 것이다. 단, 판목에 묵서로 글씨를 쓴 경우에는 좌우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림 3> 책판 뒷면에 간기를 묵서한 경우(「冷泉文集」)

2.1 지방관아

조선후기 책판 간행의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가 지방관아이다. 지방관아는 해당 관아 수령의 주도로 서책의 책판 간행이 가능한 곳이었고, 18세기 이전까지 다양한 서책의 목판본 간행이 이루어졌던 공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 가운데 지방관아에서 간행되었던 목판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였는데, 중요한 책판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지방관아에서 간행된 대표적인 책판으로 『退溪先生自省錄』을 들 수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퇴계선생자성록』 책판은 도산서원에서 소장해 오다가 2003년에 기탁한 것인데, 1585년 羅州牧에서 간행되었다(<그림 4> 참조).

『퇴계선생자성록』이 1585년 나주목에서 간행되었던 것은 당시 羅州牧使가 퇴계의 문인인 鶴峯 金誠一(1538-1593)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1583년 7월부터 1586년 12월까지 나주목사로 재임하였던 김성일은 『퇴계선생자성록』을 포함하여 『聖學十圖』, 『溪山雜詠』, 『朱子書節要』 등 퇴계 저술류 4종을 나주목에서 간행하였다.²⁾ 지방관아의 관리 책판들을 기록하였던 책판목록 중 1585년

2) 『鶴峯先生文集附錄』 卷1, <年譜>.

“(萬曆)十一年癸未 七月 未及復命 特除羅州牧使 … (萬曆)十三年乙酉 八月 還任 [○(補)刊退溪先生聖學十圖 ○又刊溪山雜詠. 續梓畢] … (萬曆)十四年丙戌 … (補)秋 刊朱子書節要 退溪先生自省錄 [先生以爲此等文字 私藏巾衍 後學不得早見 實斯文欠事 乃與儀

책판목록을 통해 ‘羅州’ 지역에 『자성록』 책판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³⁾ 1585년 이후의 책판목록 ‘나주’ 지역에서는 『자성록』을 찾을 수 없는데, 그것은 간행 직후 얼마 있지 않아 나주에 있던 책판이 외부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주에서 안동으로의 책판 이동이 있었기에 도산서원을 거쳐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나주목에서 간행되었던 책판이 임란을 거쳐 호남에서 영남으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계선생자성록』 책판의 역사적 가치는 무엇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1585년 나주목에서 간행한 「퇴계선생자성록」 책판
[刊記 ‘萬曆十三年乙酉冬羅州牧開刊’ 부분]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 가운데 나주목 이외의 지방관아에서 간행된 또 다른 사례는 慶州府에서 간행한 『益齋亂藁』이다. 1600년에 저자의 후손 李時發(1569-1626)이 경주부윤으로 부임하여 선조의 문집인 『익재난고』를 간행하였고, 이후 백여년 뒤인 1693년에 후손 李世顯이 찬한 저자의 연보를 붙여 경주부윤 許頴(1650-1719)이 목판으로 다시 간행하였는데,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책판은

禮圖 鄉校禮輯等書 而并梓于本州].”

3) 『攷事撮要』 <書冊市准> ‘羅州’ (『한국의 책판목록(상)』 (보경문화사, 1995), 103).

후자의 것이다. 책판의 간기에는 ‘숭정 후 57년 계유(1693년) 정월에 鷄林府(경주부)에서 重刊’한 것임을 표기하였다(<그림 5> 참조).⁴⁾ 당시 간행을 주관하였던 경주부윤 허경이 쓴 <益齋先生文集重刊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선생께서 평소 저술하신 것이 수없이 많은 데도 세상에 전하여 오는 것은 단지 약간의 詩篇 및 稗說 뿐이다. 지나간 만력 경자년(1600년, 선조33)에 尙書 李時發이 경주부윤으로 있을 적에 판각하였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字畫이 이지러져 읽을 수가 없었으므로 識者들이 모두 탄식하고 애석해 하였다. 내가 마침 本州[경주]의 府尹으로 와 있었으므로, 세대가 오래가면 마침내 민멸될까 염려하여 드디어 다시 판각하여 중간하였다. 선생의 이름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오래 전하여 질뿐만이 아니라, 후생들이 이를 吟誦하면 죽히 感發될 수 있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風化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찌하겠는가. 舊本에는 年譜가 없었는데 선생의 後孫인 世碩이 家藏을 조사하여 대략 始末을 기록, 나에게 보였으므로 아울러 간행하여 후세에 전한다. 계유년(1693, 숙종 19) 정월 既望에 陽川後人 許頴은 鷄林府에서 쓴다.⁵⁾

1600년에 간행한 책판의 자획이 손상되어 더 이상 인출이 불가능하기에 연보를 추가하여 다시 판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간행된 책판은 다양한 책판목록의 ‘慶州’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 경주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보존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 이때의 책판은 경주이씨 양월문중에서 2007년에 기탁하여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이 보관하게 되었다.

경주부 관아에서 간행한 또 다른 책판으로는 『東萊鄭氏族譜』를 들 수 있다. ‘丙申(1716) 5月 慶州府 開刊’이라는 간기와 함께 경주부윤 鄭必東(1653-1718)의 後敍가 있어 당시 경주부윤의 주도로 간행이 이루어졌던 또 다른 사례임을 알 수 있다(<그림 6> 참조).

4) 『益齋亂藁』 책판 간기.

“崇禎丙子後伍拾柒年癸酉正月鷄林府重刊.”

5) 許頴, 『(국역)익재집』 <益齋先生文集重刊識>, 고전국역총서 198 (민족문화추진회, 1980).

6) 『慶尙道冊板』(1730년경), 『冊板置簿冊』(1740년경), 『三南所藏冊板』(1743년경) 등.



<그림 5> 1693년 경주부에서 간행한 「익재난고」 책판
[刊記 '崇禎丙子後伍拾柒年癸酉正月鷄林府重刊' 부분]



<그림 6> 1716년 경주부에서 간행한 「동래정씨족보」 책판
[刊記 '丙申五月日慶州府開刊' 부분]

2.2 서원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의 간행처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원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19세기 경북지역에서 간행된 책판은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원에 향사되거나 학문적 사우관계에 있던 인물의 저술이 사림의 공론이 결집되었던 서원의 주도로 간행되었던 것이다.⁷⁾

7) 서원에서의 문집 간행에 대해서는 설석규, “조선시대 유교목판 제작 배경과 그 의미,” 『국학연구』 6(2005) ; 임노직, “서원 판각 책판의 현황과 내용,”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목판

서원의 간기가 있는 대표적인 책판을 시기순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면, 申之悌(1562-1624)의 문집인 『梧峯先生文集』의 책판에는 ‘庚申仲春 藏待書院 開刊’이라는 간기가 남아있어 1740년 藏待書院에서 간행되었음을 말해준다(<그림 7> 참조). 퇴계 이황이 朱熹를 비롯한 송·원·명 주자학자들의 행장·전기·어록 등을 서술한 『송계원명이학통록』의 책판에는 ‘上之十九年癸亥(1743)冬 陶山書院重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즉 1743년 도산서원에서 중간되었던 책판이다.

1700년대 서원에서 간행된 다른 사례로 柳軫(1582-1635)의 연보인 『수암선생 연보』가 있다. 책판 간기에 ‘癸巳七月 屏山書院重刊’이라 표기하여 1773년 병산서원에서 중간된 책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800년대 초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心經附註』의 경우에는 ‘三溪書院摹刻’이란 간기를 통해 삼계서원에서 간행되었던 책판이며(<그림 8> 참조), 洪灌(?-1126)의 事蹟에 대한 사실 여부를 고증한 『홍충평공사적고』 책판의 간기에는 ‘崇禎四丙午臘月日 軍威良川書院開刊’이라 하여 1846년 양천서원에서 간행되었던 책판임을 알 수 있다. 영양재령이씨 석보문중에서 기탁한 李猷遠(1695-1772)의 『냉천문집』의 간행기록은 책판의 뒷면에 묵서로 기록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上之十九年壬午…文集刻行于眞城鳳覽舊邸’라 하였다(<그림 3> 참조). 즉 영양 입암면으로 이견하기 이전인 청송 진보면 봉암서원 옛터에서 1882년에 간행하였음을 표시하였고, 이와 함께 판각에 참여한 각수의 이름을 나열하였다. 이외에도 청도 밀양박씨 선암문중에서 기탁한 朴翊(1332-1398)의 『송은선생문집』 책판에는 ‘乙亥重刊 仙巖藏板’이라 판각하여 1935년 선암서원에서 간행되었음을 표기하였고, 한산이씨 대산종가에서 기탁한 『고산급문록』의 경우에는 昭和연간의 판권 책판이 함께 남아있어 1940년 고산서원에서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록집(Ⅱ)』(2006); 김명자, “조선후기 안동의 문집간행 현황과 그 의미,” 『조선평사연구』 16(2007); 최연주·김형수, “각수의 세계와 동향,” 『동아시아의 목판인쇄』(2008)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그림 7> 藏待書院에서 간행한 「梧峯先生文集」 책판
[刊記 '庚申仲春藏待書院開刊' 부분]



<그림 8> 三溪書院에서 간행한 「心經附註」 책판
[刊記 '三溪書院摹刻' 부분]

2.3 서당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의 간행처로 서원이 계속적으로 부각되었는데, 서원만큼 중요한 책판 간행처가 서당이다. 특히 18세기 후반 이후에 서당에서 간행된 책판이 한국국학진흥원에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이들 책판의 성격은 18세기 이후 서당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어 서당 간행 책판의 연구와 관심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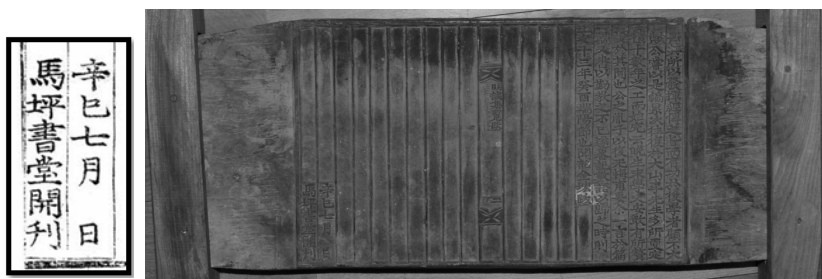
18세기 후반이 되면 서당의 성격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18세기

후반부터 서당 설립자들은 그들의 신분유지를 위해 선조를 享祀하기 시작하였고, 19세기부터 서당의 향사는 종족의 선조에 한정되는 경향을 띄며 서당이 가묘화되어 갔다. 이것은 숙종 이후 꾸준히 강조된 서원억제책과 연관되어 서원입사가 정책적으로 봉쇄되자 향촌민들이 서당향사를 그 대안으로 삼게 되었고,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시킴에 따라 서원이 서당으로 변모하였던 것이다.⁸⁾

서당에서 간행한 것임을 표기한 간기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소개하면, 성산여씨 원정공과중중에서 기탁한 『성산여씨세보』 책판이다. 이 책판에는 ‘丙辰五月上澣開刊于星州月會堂’이라는 간기가 있어 1796년 성주 벽진면 月會堂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월회당은 呂希臨(1481-1553)이 여씨향약을 교육하기 위해 세운 서당으로 성산여씨 관련 서책의 간행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안동권씨 급사중공과 후암공 중중에서 기탁한 權濂(1701-1781)의 『명성집람』 책판으로, ‘辛巳七月日 馬坪書堂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어 1821년 청송 馬坪書堂에서 간행하였음을 표기하였다(<그림 9> 참조). 달성서씨 석간정 종택에서 기탁한 金宗德(1724-1797)의 『성학정로』 책판에서도 서당에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간기가 있는데, ‘己酉季春日 靑松鳧江書堂藏板’이라는 간기와 함께 ‘約中篇 朱節彙要 同時拜刊’이라 표기하였다. 즉 『성학정로』는 1849년 청송 부강서당에서 『약중편』, 『주절회요』와 동시에 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때 동시에 간행된 2종의 책판 또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약중편』, 『주절회요』 책판에도 동일한 간기와 문구가 새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00년대 서당에서 간행된 책판의 또 다른 사례로 풍산류씨 하회 충효당 기탁의 『서애선생문집』이 있다. 본문 마지막에 ‘甲午季秋 玉淵重刊’이라는 판각된 간기(<그림 10> 참조)와 ‘甲午重刊 玉淵書堂’이라는 묵서된 간기가 함께 남아있다. 즉 1894년 옥연서당에서 중간한 책판인 것이다.

8) 18세기 후반 이후 서당 성격변화와 서당의 서적 간행에 대해서는 정순우, “18세기 서당 연구,”(박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배현숙, “조선조 서당의 서적 간행과 수장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5(2006)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그림 9> 馬坪書堂에서 간행한 「明誠集覽」 책판
[刊記 '辛巳七月日馬坪書堂開刊'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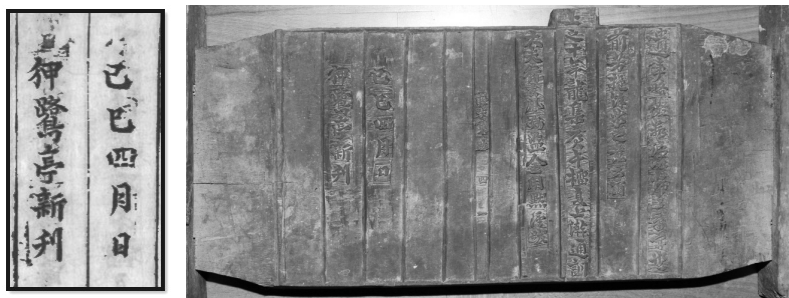
<그림 10> 玉淵書堂에서 간행한 「西厓先生文集」 책판
[刊記 '甲午季秋玉淵重刊' 부분]

서당에서 간행된 책판의 특징 중 하나는 1900년대의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청주정씨 문목공과 대종회에서 기탁한 『만오선생문집』은 1925년 檜淵書堂 간행 책판이고, 야송성씨 충숙공과 중중(백세각) 기탁의 『야계선생문집』 책판은 같은 해 鳳岡書堂에서 간행된 것이다. 이외에도 성산여씨 원정공과 중중 및 성산이씨 한주종택에서 기탁한 『원정선생실기』와 『몽어유훈』도 1933년 景行書堂, 1935년 三峯書堂에서 간행한 것임을 판권이 새겨진 판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국학진흥원에는 다수의 서당 간행 책판이 소장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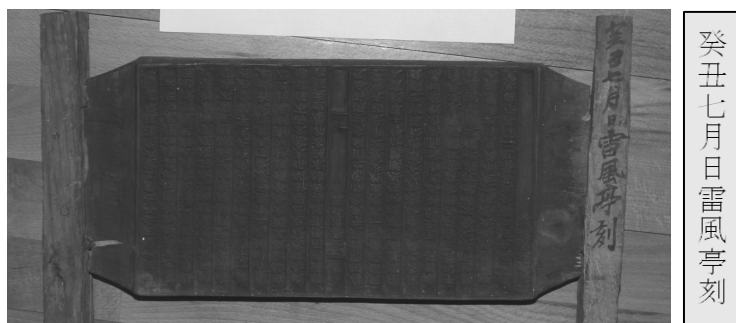
2.4 亭齋 · 私家

지방관아, 서원, 향교, 서당 등에서 간행한 책판 이외에 樓亭 또는 精舍, 齋閣 등 문중에서 간행한 私家 책판의 사례도 볼 수 있다. 문중의 私家에서 간행된 책판의 특징은 대부분 19세기 이후의 것이며, 책판의 성격 또한 문중의 가게 또는 선조와 관련된 서책을 간행하였다는 점이다.

간기가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 인천채씨 송담종중에서 기탁한 蔡先吉(1569-1646) · 先見(1574-1644) 형제의 『소성연방집』에 ‘己巳四月日 狎鷺亭新刊’이라 하여 1809년 대구 북구 狎鷺亭에서 간행된 책판임을 말해준다(<그림 11> 참조). 단양 우씨 禹玄寶(1333-1400)의 후손들이 계통을 바로잡기 위해 편찬한 『단양우씨보계변정록』 간기의 경우에는 ‘辛亥九月日 安東鼎井齋舍刊’이라 하여 1911년 문중의 鼎井齋舍에서 간행하였음을 표기하였다. 亭齋에서 간행되었던 또 다른 사례로 봉화 진주강씨 입재문중에서 기탁한 姜再恒(1689-1756)의 『입재선생유고』를 들 수 있다. 『입재선생유고』 책판에는 별도의 간기가 없으나 跋文이 판각된 책판의 마구리에 ‘癸丑七月日 雷風亭刻’이라 표기하였다(<그림 12> 참조). 즉 봉화 법전면 雷風亭에서 1913년에 간행된 책판이 남아있는 것이다. 경주손씨 송침종택에서 기탁한 孫仲暉(1463-1529)의 『우재선생문집』 또한 경주손씨 문중의 觀稼亭에서 간행한 책판임을 ‘觀稼亭藏板乙亥’라는 간기와 별도의 판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그림 11> 狎鷺亭에서 간행한 「邵城聯芳集」 책판
[刊記 ‘己巳四月日 狎鷺亭新刊’ 부분]



<그림 12> 雷風亭 간행의 「立齋先生遺稿」 책판 마구리
[刊記 '癸丑七月日雷風亭刻' 부분]

이상에서 소개한 책판의 간행처인 지방관아·서원·서당·정재는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 가운데 간기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외에도 사찰이나 山中을 간행처로 표기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⁹⁾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을 통해 그 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던 책판의 간행장소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소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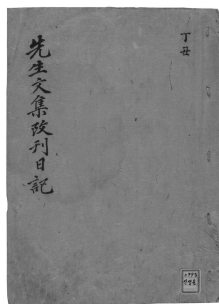
3. 책판의 실질적 간행공간

책판의 간기에 표기된 공식 간행처는 서원·서당에서부터 지방관아·정재·향교 등 다양한 곳으로 나타났음을 앞서 서술하였다. 간기에 표기된 간행처는 간행장소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간행주체로 해석할 수 있다. 간행처가 실제 책판 간행이 있었던 간행공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고 있어 간행처와 간행공간을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9) 안동김씨 소산종회에서 기탁한 「谷雲集」, 「三塘集」, 「仙源遺稿」, 「蒼筠遺稿」, 「清陰集」은 안동 鳳停寺에서 간행되었고, 성산이씨 한주종택에서 기탁한 「理學綜要」는 고령 文壽山에서 간행되었던 책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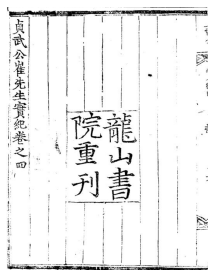


<그림 13> 陶山書院에서 간행한 「퇴계선생문집」 책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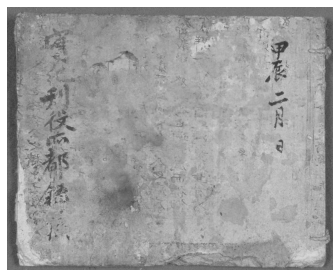


<그림 14> 1817년 「퇴계선생문집」 改刊日記

공식 간행처와 실제 간행장소가 동일한 사례로는 「퇴계선생문집」의 정축년(1817) 補刻 책판을 들 수 있다. 책판의 간행처인 陶山書院에서 1817년 실제 간행이 이루어졌는데, 개간할 당시의 전말을 기록한 「先生文集開刊日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14> 참조).¹⁰⁾ 도산서원 別所에 설비를 갖추어 刊役을 전담하게 하였고, 사찰과 문중에서 조달한 판목을 서원으로 옮겨와 작업을 하였으며 인근지역 각수들을 서원으로 불러들여 도산서원에서 책판의 간행이 이루어졌다. 또한 간역에 참여한 이들이 서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 書寫-刊行-校正-印出-製冊의 전 과정이 간행처인 도산서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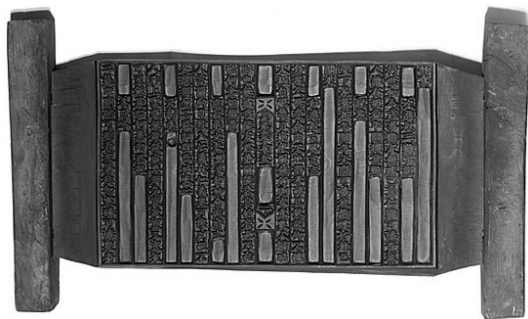
<그림 15> 1784년에 간행한 「정무공최선생실기」 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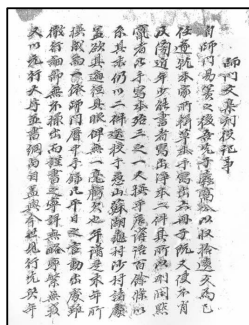
<그림 16> 1784년 「정무공최선생실기」 刊役都錄

10) 『(국역)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549-586.

간기에 표기된 공식 간행처가 실제 간행공간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崔震立(1568-1636)의 실기인 『정무공최선생실기』의 경우이다. 1784년에 간행된 『정무공최선생실기』三刊本の 간기에는 ‘龍山書院重刊’이라 표기하여 용산서원에서 간행된 책판을 명시하였으나(<그림 15> 참조), 최진립 실기 간행시 장부인 『實紀刊役所都錄』에 의하면 실제 간행이 이루어졌던 刊役所는 天龍寺의 암자인 西菴이었다(<그림 16> 참조). 書寫와 校正을 거쳐 원고를 완성하는 과정은 용산서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실제 板刻과 印出・製冊 과정은 천용사 서암에서 이루어졌다.



<그림 17> 1815년에 간행한 『백불암선생문집』 책판



<그림 18> 1815년 『백불암선생문집』 刊役記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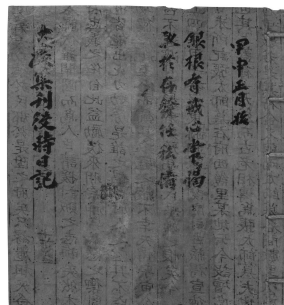
공식 간행처와 실제 간행공간이 일치하지 않는 또 다른 사례로 『백불암선생문집』 책판을 들 수 있다(<그림 17> 참조). 1815년에 간행된 『백불암선생문집』의 공식 간행처는 대구 경주최씨 백불암종가이지만, 실제 간행공간은 고령의 鳳泉書堂이었음을 문집 간역시 기록인 『師門文集刊役記事』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18> 참조). 문집의 간역소가 설치되어 任司와 刻手들이 작업하고 생활하였던 공간은 고령의 봉천서당이었던 것이다.

『대계선생문집』 간행도 공식 간행처와 실제 간행공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문집의 간행처는 고성이씨 花樹契와 大溪 李周禎(1750-1818) 후손가이지만,

이주정의 증손이 기록한 『大溪集刊役時日記』에 의하면 실제 간행은 默溪에 사는 刻手의 집에서 이루어졌다(<그림 20> 참조).



<그림 19> 1884년에 간행한 「대계선생문집」 책판



<그림 20> 1884년 「대계선생문집」 刊役日記

4. 책판 간행공간의 조건

책판 간행에 있어 공식 간행처와 실제 간행공간이 일치할 것이라고 추측하였으나, 간행과정에서 작성한 日記, 記事, 참여명단, 지출내역장부 등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간행공간은 어떤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던 것일까? 18-19세기의 책판이 간행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간행공간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1 물력과 인력 확보의 용이성

책판 간행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완성된 원고와 물력·인력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원고 또한 校正과 書寫의 반복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인력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書手·刻手·木手 등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板木·종이·먹 등의 물력 조달이 용이한 장소이어야 원활한 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책판 간행시 이들 인력과 물력은 어디에서 확보하였는지를 1815년 『백불암선생문집』 간행을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침내 여러 處所의 校本을 愚山에게 가져가 교정하고, 인하여 본가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속히 板刻의 역사를 도모하였다. 합천 海印寺에서 匠人을 불러 오고, 성주 修道山에서 材木을 다듬고, 고령 鳳泉書堂에 刊所를 설치하였으며, 소요되는 물력은 모두 同門들로부터 稷出하였다. 판목을 켜 것은 계유년(1813) 9월, 글자를 새긴 것은 갑술년(1814) 8월, 종이에 찍어낸 것은 을해년(1815) 정월로, 이 役事를 마치는데 3년이 걸렸으며, 들어간 비용은 모두 800緡이었다.¹¹⁾

문집의 간행장소는 고령의 봉천서당이었다. 판목은 성주 修道山에서 조달되었고, 각수 등의 인력들은 합천 海印寺에서 확보하여 봉천서당에서 판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수도산에서 조달된 판목의 수량은 330판이었고, 이외에 마구리에 사용되는 裝頭木 100개가 고령으로 운반되었다. 참여한 匠人은 모두 28명으로, 그 중 해인사 승려가 9명이었는데, 각 지역별 참여 장인은 <표 1>과 같다.¹²⁾

<표 1> 1815년 『백불암선생문집』 참여 匠人の 지역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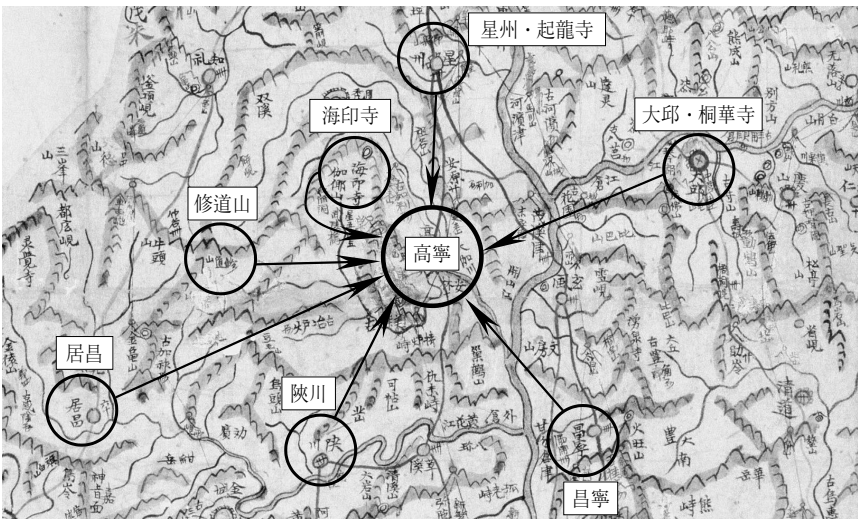
합천(3)	해인사(9)	성주(1)	용기사(1)	대구(8)	동화사(1)	거창(4)	창령(1)
李興植 (刻手)	釋頓慧(都刻手)	裴正玉 (刻手)	釋有榮 (刻手)	金興采(公事員)	釋肯令 (刻手)	張慶運 (首頭)	李宜植 (刻手)
朴勝百 (刻手)	釋頓沾(掌務)			韓宅守(刻手)		方德成 (刻手)	
金日孫 (木手)	釋達信(曹司)			朴台觀(刻手)		吳尙得 (刻手)	
	釋達澄(刻手)			金昌祿(刻手)		朴萬儀 (刻手)	
	釋達熙(刻手)			韓繼千(刻手)			
	釋戒沾(刻手)			金根(冊工)			
	釋定印(刻手)			李龍(冊工)			
	釋允性(刻手)						
	釋戒寬(炊飯)						

11) <師門文集刊役記事>.

“遂以諸處所校本 就正于愚山 因與本家諸人 亟圖剞劂之役 招匠於陝川之海印寺 取材於星州之修道山 設所於高靈之鳳泉書堂 而物力則皆自同門稷出焉 蓋伐板在癸酉九月 刊字在甲戌八月 印札在乙亥正月 是役也 首尾凡三歲 而費入凡八百緡.”

12) 『백불암선생문집』 간행을 기록한 <師門文集刊役記事>의 ‘刻手把定’의 내용이다.

문집 附錄의 경우에는 아예 해인사에서 판각과 인출이 이루어졌고, 완성된 책판과 인출지가 봉천서당으로 옮겨왔다.¹³⁾ 즉 『백불암선생문집』 간행에 있어 해인사와 수도산은 중요한 물적·인적 자원의 조달지역이었고, 이들로부터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어야 刊役所로서 적합하였던 것이다. 이에 고령지역은 해인사와 수도산 두 지역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며, 대구·거창·합천·성주·창령의 匠人들을 확보하기에도 용이한 지역이었던 것이다(<그림 21> 참조).¹⁴⁾



<그림 21> 1815년 「백불암선생문집」 간행지역(高靈)과 물력·인력 조달 지역과의 지리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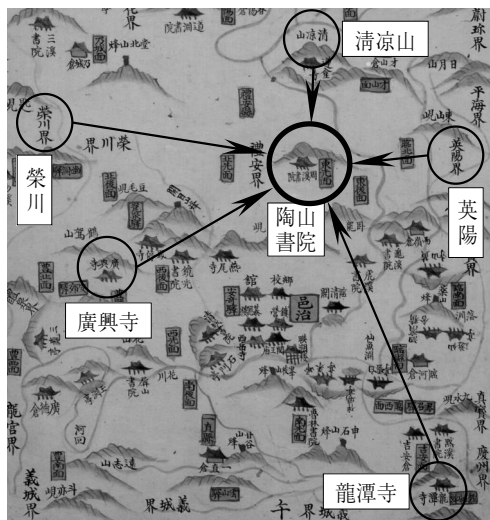
1817년 도산서원에서 간행된 『퇴계선생문집』 補刻 작업의 경우에도 인근지역에서 물자와 각수를 동원하였다. 판목은 청량산과 영양 주곡 조씨 문중에서 조달하였고, 匠人는 淸涼寺·廣興寺·龍潭寺 승려들과 안동·영주지역 각수들을

13) <刊役所下記>.

“附錄印出紙 二束十五丈 三錢九分 [自海印刊出], (附錄)印出黃 五錢二分, (附錄)運板價 一兩五錢.”

14) 『東域圖』, 규장각 소장본, 古4709-27.

확보하여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때의 조달 지역들도 『백불암선생문집』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예안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접근용이한 경로를 통해 물력의 조달과 인력의 지원을 받았다(<그림 22> 참조).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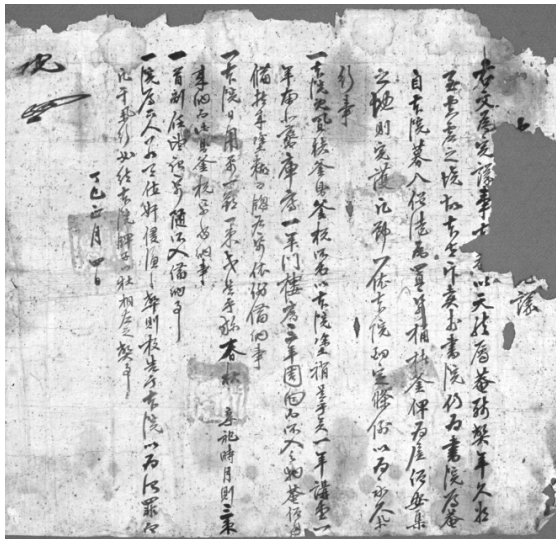
<그림 22> 1817년 「퇴계선생문집」 丁丑補刻本 간행지역과 물력·인력 조달 지역과의 지리적 위치

용산서원에서 1784년 간행하였던 「정무공최선생실기」의 판각이 실제 天龍寺 西菴에서 이루어졌음을 앞서 언급하였는데, 천용사 서암도 책판의 판각과 인출에 필요한 물력을 조달할 수 있었던 중요 공간이었다. 이는 용산서원에서 작성한 아래의 完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암자[西菴]는 천용사 屬菴으로써 잔폐한 해가 오래되어 장차 공허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本寺[천용사]에서 서원[용산서원]에 斥賣하여 서원의 屬菴이 되었다. 본원에서 승도를 募入하여 紙桶과 楮釜[다나무 삶는 가마]를 마련해 주어 居僧들이 편안히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삼았다. 그리하니 完議하는 범절은 일제히 본원의 작정조례에 의거하여 영구히 거행할 것이다.¹⁶⁾

15) 『廣興圖』, 안동부, 규장각 소장본, 古4790-58.

위의 내용에 의하면 책판의 간행장소였던 西菴은 천용사에서 용산서원에 헐값에 팔으로써 용산서원 소유가 되었다(<그림 23> 참조). 서원에서는 종이 만드는 도구인 지통과 닥나무 삶는 가마[楮釜]를 지원하고 승려를 모집하여 종이를 만들 수 있게 하였고, 대신 가마세[釜稅]로 서원에 필요한 종이를 만들어 납부하게 하였던 것이다. 서암은 인출에 필요한 종이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었으며 사찰에 소속된 각수 등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책판 간행장소로서 적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천용사 암자에서 용산서원에 종이를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1737년 完議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책판의 간행공간은 간행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물적·인적 지원이 지리적 위치 또는 상황에 따라 매우 용이한 조건을 가진 곳이었다.

16) <龍山書院完議>.

“本菴以天龍屬菴殘弊年久 將至空虛之境 故本寺斥賣於書院 仍爲書院屬菴 自本院募入僧徒 爲置紙桶楮釜俾爲僧安集之地 則完議凡節一依本院酌定條例 以爲永久舉行事.”

4.2 참여인력의 작업 및 식생활 공간의 확보

책판을 간행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원고를 교정하고 문장을 확인하는 유사들부터 판각하는 사람, 마구리 제작하는 사람, 인출하는 사람, 표지를 만들어 책 매는 사람, 장인들을 관리하는 任司들, 매일의 지출과 작업량을 기록하는 사람들 등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사람이 모이면 먹어야 하고 묵어야 하는데, 이때 작업과 생활이 가능한 공간이 요구되며 상당한 지출이 생기게 된다. 책판 간행공간의 필요 요건은 공간의 확보와 숙식이 가능한 곳이어야 했다.

1884년 안동 고성이씨가에서는 선조의 문집인 『대계선생문집』의 간행을 결정하였으나 간행할 공간이 없음을 한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중 長德들이 다 올해에 간역 일을 시작하자고 말하였으니 내 선친의 유지를 알아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감히 받들어서 일을 주선해야 하지 않겠는가마는 기근과 흉년을 만나 일은 크고 힘은 작으니 우선 장소를 마련하려 하여도 거기에 따른 모든 일들이 예년에 비하여 갑절이 될 뿐만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 전적으로 각수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판각을 가지고 오면 공임과 소용된 비용을 주기로 하되, 판제가 혹 좋지 못하여 글자의 모양이 만일 정교하지 못하면 비록 이미 판에 새겼다 하더라도 꼭 되물린다는 뜻으로 약속하였다. ... 2월 26일 비로소 길협(吉峽)의 묵계에서 간행이 시작되었다. 묵계는 즉 각수의 집이 있는 마을 이름이다.¹⁷⁾

고성이씨가에서는 간역에 관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숙식 관련 비용과 장소를 지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판각의 모든 업무와 책임을 각수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각수의 집에서 판각 후 가져오는 방식을 택하였다. 완성된 원고를 판에 새기는 과정에서 물리적 거리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판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간역소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숙식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17) 『大溪集刊役時日記』.

“門內長德 皆以今年始役爲言 以其知我先君遺意故也 小子敢不奉而周旋乎 但歲值歉荒 事巨力綿 將欲設所 則凡百酬用之節 不啻倍蓰於平年 故議定別般規劃之道 專委託於刻手處 約以刻板以來 則出給其賃價與所入 而板材若或品劣 刻字樣如利不精 雖已刻之板斷當退送之意 □爲約束 ...二十六日 始刊於吉峽之默溪 卽刻手家所在村名也.”

1817년 도산서원에서의 책판 간행은 상황이 달랐다. 넉넉한 작업 공간과 숙식 제공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날그날 서원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체류인원수를 계산하기 힘들지만, 5월 28일자 기준으로 16명의 각수와 여러 명의 서원 선비들이 체류한 것으로 보아 책판 간행과 관련된 인물이 하루 평균 20명 이상 숙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⁸⁾ 술과 음식을 각수들에게 제공하거나, 국수 등의 별미를 제공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작업이 끝날 때에는 전별을 위해 술과 음식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장마로 인해 물이 범람하고 도로가 두절되었을 때에는 식재료의 부족으로 수많은 인원들의 음식 제공이 힘들다며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고,¹⁹⁾ 장맛비 뒤 시장에서 쌀을 판매하지 않자 식사 제공에 문제가 생겼다는 기록한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식사를 제공해야할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식재료비의 지출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1815년 『백불암선생문집』을 간행할 때 가장 먼저 지출하여 준비한 것이 都刻手工價와 刊本書寫價, 판목값(運板費・裝頭木)이다.²⁰⁾ 즉 사람과 원고와 판목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지출하여 준비해둔 것은 불때는 나무 食木爨木(150駄, 15냥)과 밥술인 食鼎(2坐, 9냥7전)이었다. 숙식에 필요한 나무와 밥 짓는 술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물품이었던 것이다. 인력들이 먹어야 작업을 할 수 있었기에 준비해두어야 하는 필수 구매품이었다. 또한 주목되는 부분은 간행작업에 참여한 인력들의 명단을 작성하며 마지막에 炊飯을 담당할 해인사 승려 釋戒寬과 奴 允發을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취반을 담당하는 이들을 간역참 여자로 인식하였던 점과 해인사에서 식사를 담당할 승려를 별도로 배정하였다는 점에서 간행작업에서 식생활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8) 『先生文集改刊日記』.

“刻手之前後來會者十六名 而院儒之滯留亦多.”

19) 『先生文集改刊日記』.

“許多支供 凡百罄竭 而潦雨所阻 變通極艱 可悶.”

20) <刊役所下記>.

“都刻手元定工價 五百四兩 一板一兩八錢式, 刊本書寫價 二十九兩, 運板費 三百三十板十兩九錢 一板三分式, 食木爨木 一百五十駄 十五兩 一同五分式, 裝頭木 百介二兩 一介二分式, 假家木 二十介四錢, 裝頭釘 一百十四丹四兩六錢六分, 食鼎 二坐九兩七錢, …”

1784년 『정무공최선생실기』의 간행을 위해 용산서원에서의 書寫·校正작업과 천용사 서암에서의 板刻·印出작업 과정에서 소비되었던 식재료와 술·담배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쌀·찹쌀·적두·메밀 등의 곡식류, 미역·김·파래 등의 해조류, 청어·명태 등의 어류, 닭고기·쇠고기·생치 등의 육류에 서부터 소금·메주·장·누룩까지 식생활에 필요한 각종 식재료가 사용되었다. 또한 사람이 모이고 생활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술값과 담배값이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간행시 지출내역을 기록한 『實紀刊役所都錄』에는 다양한 식재료와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 소비된 쌀과 식재료를 분석한다면 체류 하였던 인원과 간역소에서의 생활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간역에 필요한 생활 물자의 대략적인 규모가 계산될 것이라 생각된다.

<표 2> 1784년 「정무공최선생실기」 간역시 소비되었던 식재료 종류 및 술·담배 사용내역

	소비되었던 식재료 종류	술·담배 사용내역
書寫·校正 원고 완성 (2/2~2/21)	쌀[米], 건시(乾柿)_書寫人午饒飢, 유과(飴糖)_書寫人午饒飢, 두부[造泡], 김[海衣], 흰 소금[白鹽], 청어(靑魚), 생치(生雉), 쇠고기[黃肉], 대게[紫蟹], 목은닭[陳鷄]_都監呻吟時, 명태(明太), 떡[餅] 등	• 冊版運來人酒價 • 靑松南生員來時酒價 • 諸員來會時酒價 • 刻手酒價 • 南草價_持去西菴
板刻 (2/22~윤3/11)	쌀[米], 미음[漿], 파래[靑海衣], 김[海衣], 두부[造泡], 밀가루[眞末], 소금[鹽], 미역[甘藷], 자반[麻佐飯], 들깨[水荳], 적두[赤豆], 청어(靑魚), 생치(生雉), 붉은게[紫鱸], 누룩[曲子], 메주[熏造], 장(醬), 쇠고기[黃肉], 떡[餅], 유과(飴糖), 어채(魚菜), 생곽(生藿), 찹쌀[粘米], 참깨[眞荳], 태란[太卵], 생충(生蟲), 게[蟹], 송아지[黃犢], 메밀[木麥] 등	• 見市時僧人酒價 • 藏材木斫伐時酒價 • 庫子處酒價 • 客酒價 • 木手酒價 • 大丁酒價 • 治匠人酒 • 刻手酒價 • 菴洞南草價 • 佳岩南草價
印出·製冊 (윤3/15~4/1)	쌀[米], 양미(糧米), 어찬(魚饌), 장(醬), 밀가루[眞末], 누룩[曲子] 등	• 木手放送時酒價 • 冊匠放送時酒價 • 書工放送時酒價 • 永學僧酒價 • 院下人等酒價 • 客酒價 • 南草價

장인들의 작업공간도 확보되어 있어야 판각 등의 작업이 가능할 수 있었다.

도산서원에서서의 『퇴계선생문집』 판각의 경우에는 강이 범람하고 도로가 두절될 정도의 장마비가 내려도 판각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작업은 실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백불암선생문집』이 간행되었던 봉천서당의 경우에는 판각이 시작되기 전에 판각작업을 위한 가건물인 假家를 세웠다. 서당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공간의 확보를 위해 假家の 조성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刊役所下記>에는 假家木 20개의 값과 가가 조성시 役丁의 인건비에 대한 지출내역이 기록되어 있어 가가의 대략적인 규모를 추측할 수 있다.²¹⁾

이와 같이 간행공간은 간행의 참여인력들이 작업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능하며 이들의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책판간행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4.3 간행주체와의 소통 가능한 시스템 구축

간행공간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지리적으로 간행주체와의 소통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간행주체와의 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은 간행주체와 간행장소가 일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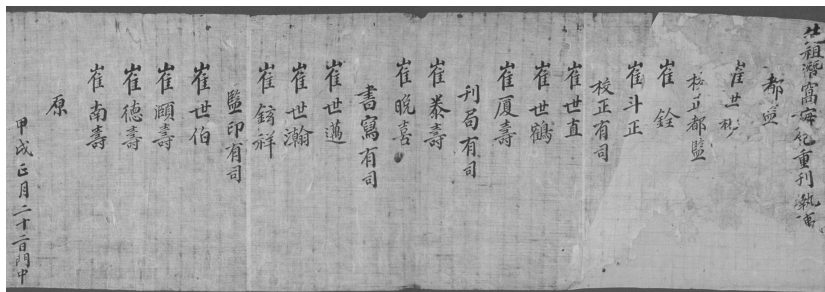
<그림 24> 龍山書院과 天龍寺 西菴의 위치

는 경우이다. 조직의 구성원 의견이 수렴되고 교정과 수정이 발견되거나 결정되는 즉시 판각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간행주체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통은 원활하다고 볼 수 있다. 1784년 『정무공최선생실기』 간행의 경우 간행주체인 용산서원과 간행장소인 천용사 서암은 물리적으

21) 『師門文集刊役記事』 <刊役所下記>.

“假家木 二十介四爿, 賃米 一兩 [假家成造時役丁三時下].”

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그림 24> 참조)²²⁾ 수시로 서원의 都監·有司 등의 결정사항과 의견이 반영되고 작업의 감시감독도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執事記는 아니지만 1874년 용산서원에서 정무공 최진립의 실기를 중간할 때 작성한 집사기를 살펴보면, 전체 구성이 都監(1), 校正都監(2), 校正有司(3), 刊局有司(2), 書寫有司(3), 監印有司(4)로 이루어져 교정·서사·인출감독에 초점을 둔 시스템을 알 수 있다(<그림 25> 참조). 이것은 간행주체와 가까운 위치에서 간행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간역업무보다는 교정·서사에 중점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25> 1874년 용산서원의 崔震立 실기(五刊本) 간행시 執事記

반면 1815년 『백불암선생문집』의 경우에는 간행주체인 대구 백불암 종중과 간행장소인 고령 봉천서당은 원활히 소통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거리였다. 때문에 간역 담당자들의 구성과 거주지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 그 구성과 거주지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22) 『地乘』 경주부, 규장각 소장본,奎15423.

<표 3> 1815년 「백불암선생문집」 刊役任司의 구성과 거주지

同門稷任司		刊役所任司					
都廳	有司	都檢	伐板	運板	校正	監印	司貨
趙宅奎 (대구) 李祥發 (의성)	蔡必勳(대구) 崔奎鎭(대구) 郭柱基(대구) 崔孝述(대구)	李光理 (성주)	鄭夢說 (합천)	文光瓚 (합천)	李鍊(칠곡) 鄭奎錫(성주) 李仲樑(초계)	朴基復(대구) 李深(대구) 朴慶家(고령)	李會運 (칠곡)

표에서 살펴보듯이 이들은 크게 2가지 구조로 나뉘었다. 同門稷任司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구에 거주하며 금전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였고, 刊役所任司의 경우는 실제 간행장소인 봉천서당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봉천서당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간역의 실무를 다루었다. 예를 들면, 나무를 베는 伐板, 벤 나무를 간역소까지 운반하는 運板, 원고의 교정을 담당하는 校正, 책판의 인출을 감독하는 監印, 전체 기록(장부·시도기)을 담당하는 司貨 등 상당히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간행주체와 간행공간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5. 맺음말

인쇄된 서책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의 모체인 책판에는 간행할 당시 살아있는 정보들이 숨어있다. 간행이 이루어졌던 공간과, 그 공간 속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포착해낼 수 있는데, 본고는 그러한 출발점에서 시작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에 새기거나 묵서한 刊記를 통해 책판의 공식 간행처를 지방관아·서원·서당·문중[私家]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책판의 공식 간행처가 실제 간행이 이루어졌던 간행공간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공식 간행처가 실제 간행공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확인된 18-19세기의 간행사례를 통해 책판이 간행되었던 공간의 모습과 간행공간을 이루었던 여러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책판의 간행은 물력·인력 조달이 지리적 위치 또는 상황에 따라 매우 용이한 조건을 갖춘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간행의 참여인력들이 작업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으로 확보 가능한 곳이었으며, 이들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의 공간이어야 책판간행이 가능하였다. 이외에도 간행주체와 소통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간행작업이 원활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물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운영구조와 구성원들의 실질적 업무를 통해 소통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의 간행처와 간행공간을 보다 정밀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책판 실물에 새겨졌거나 묵서한 기록들의 정확한 조사와 함께, 책판 간행 시 작성된 일기·장부류들에 대한 발굴 등이 요구된다. 또한 책판을 서책의 개념으로 인식한 서명별 조사가 아니라 한장 한장의 책판을 하나의 유물로 인식하여 낱장 책판의 전수 조사가 절실하다. 각각의 판마다 그 속의 역사와 사연이 다르기 때문에 서명 단위가 아닌 낱장 단위로 그 제작연도와 補刻·追刻의 역사를 되짚어본다면 책판 연구의 새로운 분야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고지도, 원문자료, 국역자료, 책판 등

<丁巳正月龍山書院完議>. 용산서원 소장본.

『大溪集刊役時日記』.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先生文集改刊日記』.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師門文集刊役記事』. 백불암종중 소장본.

『實紀刊役所都錄』. 용산서원 소장본.

『東域圖』. 규장각 소장본(古4709-27).

『廣輿圖』. 규장각 소장본(古4790-58).

『地乘』. 규장각 소장본(奎15423).

『鶴峯集』. 한국문집총간 48. 민족문화추진회, 1989.

『(국역)익제집』, 고전국역총서 198. 민족문화추진회, 1980.

『(국역)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한국의 책판목록(상)』. 보경문화사, 1995.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 다수.

2. 목록집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지역의 목판자료(1~4)』. 한국국학진흥원, 2005~2007.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목판 목록집 (Ⅰ~Ⅲ)』. 한국국학진흥원, 2006~2008.

3. 저서 및 논문

김명자. “조선후기 안동의 문집간행 현황과 그 의미.” 『조선사연구』 16(2007).

남권희. “목판 제작과 간행의 실제.” 『동아시아의 목판인쇄』. 한국국학진흥원, 2008.

———. “한국의 목판 연구사와 연구 동향.”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목판 목록집 (Ⅰ)』, 2006.

류준필. “책판 제작의 사회·문화적 의의.” 『대동문화연구』 70(2010).

박장승. “貞武公崔先生實紀 刊行에 대하여.” 『경주문화』 11(2005).

배현숙. “조선조 서당의 서적 간행과 수장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5집 (2006).

설석규. “조선시대 유교목판 제작 배경과 그 의미.” 『국학연구』 6(2005).

손계영. “지방관과 선조 문집 간행.” 『영남학』 15(2009).

신승운·서정문.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문집류 책판의 성격과 가치.” 『대동문화연구』 70(2010).

여증동. “퇴계선생자성록 초간나주본 해제.” 『퇴계학보』 61(1989).

오경택. “조선시대 서당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전북사학』 31(2007).

임노직. “서원 판각 책판의 현황과 내용.”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목판 목록집(Ⅱ)』, 2006.

정순우. “18세기 서당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최연주·김형수. “각수의 세계와 동향.” 『동아시아의 목판인쇄』, 2008.